

#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사회복지실천현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성 천<sup>\*\*\*</sup>

(중앙대학교)

김 은 재<sup>++</sup>

(중앙대학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제도권 사회복지실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실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실천에 대한 통찰과 함의를 얻고자 한다.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 그리고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으로 접근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제도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거시적 실천을 하고 있는 급진사회운동가 9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84개의 의미단위와 24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가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아우르는 본질적 주제는 ‘준비된 변화의 빗장열기’, ‘숙명처럼 다가온 일’, ‘아래로부터의 개혁모색’, ‘소수자들의 결집된 힘’,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함’,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적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주제어: 급진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운동, 신사회운동, 당사자운동, 권한부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 1. 들어가기

최근 공공의 읍·면·동까지 확대된 사례관리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

\* 본 논문은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김성천·김은재 외, 2015)을 분석 자료로 활용함.

\*\* “본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주저자 ++교신저자

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2016년 현재 8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그러나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 속에서 일각에서는 진정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와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의 존재여부에 대한 고민과 성찰적인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한덕연, 2015; 오마이뉴스, 2015).

한국 사회복지윤리강령 전문 중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라고 사회복지사의 미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선서에 나오는 미션을 사회복지사들이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다. 미국에서 사회사업(social work)이 시작되던 1900년대 초반, 인보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반전운동, 인종차별문제, 빈곤과 노동문제, 성차별 등의 정의와 평등 등의 거시적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실천을 수행했다(Reisch, M., and Andrews, J., 2001).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거시적 차원의 실천보다 개인의 변화를 중시하는 임상사회복지사로 주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높아 정부를 대리한 직간접적인 통제자 또는 정부의 시너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Specht, 1994).

한국 사회복지실천은 6.25전쟁 직후 미군정을 겪으면서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실천모델 중심으로 이식(移植)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개인의 역기능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미시적 차원의 실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교육과 현장에의 접근은 사회구조와 맞물려 일어나는 거시적인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김영모, 1981; 김종해·김민선·노연화·이채원, 1991; 김미원, 1997; 김인숙, 2004; 이은주, 2003; 김성천·이은정, 2012; 최명민 외, 2014). 한국의 사회복지실천교육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통합실천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미시적 실천 중심으로 편제되어 교육되고 있다(김성천·이은정, 2012; 최명민 외, 2014). 이러한 태생적 한계와 함께 최근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경제세계화의 득세는 신관리주의를 심화시켜 증거기반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성과를 중시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간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Lena Dominelli, 한인영·김성천 역, 2007; Dustin, D. 2007). 또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 위탁시설중심의 전달체계에 이루어진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실천현장은 지방정부 관련 부서의 정기적인 위탁체 심사와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갑을(甲乙) 관계로 통칭되는 일방적 권력관계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기 힘든 다중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미경, 2008). 따라서 을의 을(乙)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관은 획일화된 평가기준으로 인해 전문직의 핵심인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복지사는 국민이나 타 전문직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직에 대한 의문 제기는 물론 타 전문직과의 경계에서도 다층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Lena Dominelli, 한인영·김성천

역, 2007; 김미원, 1997). 따라서 이러한 풍토 하에서 교육받고 훈련된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차별과 억압, 불평등, 사회부정의(不正義)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적합하게 개입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회복지사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Specht, 1994; Fook, 2007). 그동안 이러한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성(自省)이 학계나 현장실천가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나(김영모, 1981; 김미원, 1997; 김인숙, 2004; 이은주, 2003; 정순돌, 2005), 그러한 비판이나 대안제시가 관념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근본이 다르지 않은 새로운 외국 모델의 도입, 매뉴얼 개발을 통한 규율 기준의 강화, 자격이나 규제강화 등과 같은 기능적인 대안 제시에 머물러 가시적인 변화를 얻어내기 어려웠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문제의 근본인 사회구조적인 변화까지 도출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실천접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비제도권인 NGO단체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제도권 사회복지실천 현장인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처방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을 활발히 수행해 이에 상응하는 혁혁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2007; 김미경, 2008; 김의동, 2010; 김성천 외, 2015). 그리고 최근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바사) 운동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운동 참여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진사회운동가들의 경험이나 성과에 대한 주류 사회복지실천현장 관계자들과 학계의 관심 부족으로 학교나 현장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실천 불균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써 비제도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는 급진사회운동가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급진적 실천경험이 급진사회운동가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한국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현장실천가들에게 어떤 함의를 던지고 있는지를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생하고 심도 깊게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가 사회복지현장의 미시적인 실천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모델의 지평을 확장함은 물론, 학계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사회복지실천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급진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는 개인의 환경적응 뿐 아니라 사회 환경과 구조의 변화를 둔 실천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달해 왔다(Specht, 1994). 19세기 초에는 인보관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회

복지사들의 사회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켜 왔으나(Reisch and Andrews, 2001), 이후에 심리학의 득세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이 전문화의 길에 관심을 두면서 기존 사회구조에 클라이언트를 적응시키는데 초점을 둔 임상중심 사회복지실천이 득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급진 사회복지실천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였다(Mel Gray, M., Webb, S. A., 김기덕 외 역, 2012). 급진 사회복지실천은 위기에 처한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노력 속에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점진적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자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Mullaly and Keating, 1991), 진보주의, 개혁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Bakley and Brake, 1975; Leonard, 1975; Piven and Cloward, 1972). Fook(2002)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급진주의 접근의 유형을 ① 영국의 Bailey와 Brake, Corrigan과 Leonard, 미국의 Galper, 호주의 Throssel, Rees, De Maria, Fook로 대표되는 급진사회복지실천과 ② Moreau와 Mullay의 구조주의 사회사업, ③ 구조적 관심으로 성의 차원을 첨가한 페미니스트 접근으로 분류했고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한 급진개별사회사업,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비판사회사업 등을 급진사회사업이론의 유형에 추가했다. Reisch와 Andrews(2001)등은 1990년대의 급진사회사업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기존 개념들 외에 임파워먼트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전문주의, 지배와 저항을 다루는 반억압-반차별 운동을 새로운 실천모델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급진사회복지실천 모델은 고전적 사회주의로부터 구조주의, 페미니스트, 임파워먼트, 다문화주의, 반차별-반억압주의, 비판주의 사회복지실천모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며(Thompson, 1993; Dominelli, 2002; Malcolm Payne, 2003; 김기덕 외, 2012) 최근 임상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대안적인 실천으로 부상되고 있다.

급진사회복지사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의 초점은 개인과 미시적 환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과 사회경제적 구조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개인의 권력부족, 이데올로기적 역할 제한, 이익집단과의 갈등, 개인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능력, 사회적 낙인과정, 사회경제적 구조의 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개인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통제되고 착취당한다고 인식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급진사회복지실천 방법(Fook, 2002; Reisch and Andrews, 2001)의 공통적인 기본원리들은 1) 사회의 제도적 구조가 클라이언트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신념과 현존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 2) 사회와 개인적 문제의 원인과 주된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과 차별에 초점을 둠. 3) 사회사업 전문직과 사회복지체계의 사회 통제 기능들에 대한 분석 4) 구조적이고 내면화된 억압에 초점을 맞춤. 5) 원인과 기능 그리고 사적 문제와 공공 쟁점의 연계에 관심을 지님. 6) 인간 해방과 사회적 변화를 추구함 등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규율시대를 거친 한국 사회복지실천에서 급진사회복지실천은 현재 소개도 미미하지만, 용어상 '급진주의'를 과격한 사회주의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론과 모델을 실천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김성천·김은재 외, 2015). 한국에서 '급진'이란 용어는 정치적으로 '좌파적'인 접근으로 인식되어 금기시되기도 했지만 용어의 뜻은 어떤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고 이를 미루지 않고 실천으로 행한다는 뜻(위키

백과 사전, 2015)이다. 급진적 방법에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복지계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급진사회복지실천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신사회운동, 임과 위먼트, 옹호, 페미니스트 운동, 반차별·반억압주의 등의 접근으로 일정 부분은 제도권 현장에서 익숙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같은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제도권인 NGO분야에서도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미경, 2008). 즉, 이러한 급진사회복지실천의 적용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의 근본적인 방법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기존 임상중심의 실천과 함께 사회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그에 상응하는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구조의 변화를 지향하는 급진사회복지실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영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성천, 2005, 2008; 김성천·이은정, 2012; 김성천·김은재 외, 2015).

## 2) 급진사회복지실천과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에서 태생했기에 다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변화보다 환경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급진사회복지실천의 주요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즉, 인간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미시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응에 지나치게 경도된 현 사회복지실천의 한계를 중범위 및 거시수준의 집합행동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은 실천방법으로 특징이 있다(나병식, 1998; 이영환, 2005). 사회복지실천 방법으로서 사회운동은 참여조직의 결성,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조합정치, 지역사회 이슈와 정치에 개입, 조직 내에서의 분권화와 민주화, 복지권과 옹호(advocacy) 등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사회운동 범주에 속한다(Brake and Bailey, 1980: 18-25). 사회운동이 갖는 사회복지적 성격은 인권 및 복지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내는데, 노동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장애운동, 지역복지운동, 사회복지노동운동, 보건의료 전문직노동운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 및 복지권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에 대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복지운동이라 명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남세진·조홍식, 1995; 이영환,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운동은 1970-80년대 노동 현장이나 산동네의 철거현장을 중심으로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간헐적,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후 1990년대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과 운동을 비롯하여,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사건, 의료보험법과 연금법등과 관련된 공익소송 등 복지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국면의 활동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이영환·이정운, 1996; 김수정, 2007).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사회복지운동은 과거 노동자의 계급운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목표를 둔 사회운동과는 달리 생태 및 환경운동, 여성운동, 지역자치 운동, 평화운동과 같이 운동참여자의 정체성 확인과 시민사회의 생활양식 변화에 초점을 두는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권태환 외, 2001: 35). 이러한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발전을 목표로 삶의 질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을 추구하고 임상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방법론으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운동은 기본적으로 제도권과 비제도권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제도권 사회복지운동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NGO 또는 NPO)은 비제도권 사회복지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운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운동이 운동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에 모두 진보적이며, 급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제도권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시스템이 국가의 기획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다소 보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제도권 사회복지운동은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사안에 따라 반응 및 대응의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기에 급진적, 진보적 성격을 더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기본적으로 NGO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는 NGO로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은 제도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운동은 본래의 운동적 성격이 왜곡된 상태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활성화 된 방아골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 활동들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의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거시적 개혁운동까지는 실천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신명호, 2012). 즉, 제도권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법적 지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약이 있어 미시적 차원의 주민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태수(2008)는 사회복지계에서의 복지운동이 국민의 복지나 복지국가를 위한 본연의 목적이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사회복지운동이 주로 시설지원확대, 인건비 인상, 전담공무원 또는 민간 인력의 증원 등 사회복지 영역의 독점적 지위 확보 등만을 운동의 주제로 삼아 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실천적 가치를 현장에서 사회복지운동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 사회복지운동이 국가의 정책 내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이기에 운동과 관련된 이슈가 현장에 가깝기 보다는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 Top-down 방식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제도권 운동의 한계는 사회복지학계의 내부적 시각에 매몰되어 사회의 다양한 부문이나 집단과의 공조 및 연대 정신이 부족한 것 등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이태수, 2008).

반면 비제도권 사회복지운동은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만들고, 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주민과 함께 찾아 나가고 있다. 이들의 이슈는 지역경제개발이나 환경, 교육, 문화, 교통, 물가, 주거 등의 문제 외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시민단체들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김경희, 2005; 김성천·김은재 외, 2015). 이는 사회복지운동이 그동안 지니고 있지 못했던 당사자 중심의 연대와 집합운동, 즉 bottom-up 방식의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특히 급진적, 진보적 변화 등 속도감 있는 운동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강점을 보여준다. 특히 2007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운동과정은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기록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2007). 하지만 제도권 사회복지기관에서 bottom-up 방식의 사회복지운동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비제도권 사회복지운동에 비해 자원과 자원

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영역 내의 이념적 보수화, 관 중속화, 기득권화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이태수, 2008). 또한 관과의 상보적 관계에서 자족적인 성격으로 안주해온 사회복지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념적으로 보수화 될 수밖에 없는 한계와 관과의 적당한 타협관계 및 이를 통한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는 기득권화는 사회 환경과 구조의 적극적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와 의미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 개인과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참다운 실천을 지향하는 변화는 필요하고, 그 변화의 방법으로 비제도권의 급진사회복지운동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급진사회복지운동은 제도권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bottom-up방식의 사회복지운동이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급진사회복지운동의 모형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제도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ottom-up 방식의 급진사회복지운동이 가능하다면 현 사회복지실천의 비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Giorgi, 2004)는 참여자의 생활세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사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기술하여 현상의 본질과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특히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상황적 구조진술을 통하여 참여자의 개인적인 독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참여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인 구조적 진술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특성이 있다(이남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급진사회운동가들이 비제도권 사회복지현장에서 체험한 실천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기술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상황적 맥락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급진사회운동가들의 경험을 깊게 이해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실천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sup>1)</sup>(김성천·김은재 외, 2015)에 나오는 참여자들의 기술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본 연구

1)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업에서 본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 한국 사회복지현장에서 급진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실천가를 찾아 직접 심층 인터뷰하여

참여자들은 급진사회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민중운동 등을 펼치다 6.10항쟁 이후 민주화가 정착되자 비제도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거시적인 접근으로 법과 제도 등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참여자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실천영역	사회운동 실천경력
참여자1	남	50대	석사	장애인인권운동	30년
참여자2	여	40대	학사	시민사회운동	28년
참여자3	남	40대	석사	시민사회운동	25년
참여자4	남	50대	박사	환경운동	15년
참여자5	남	50대	석사	지역사회복지운동	30년
참여자6	남	40대	학사	반빈곤운동	20년
참여자7	남	40대	석사	성소수자운동	10년
참여자8	남	70대	박사수료	이주노동자인권운동	45년
참여자9	여	60대	박사수료	이주여성인권운동	45년

###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김성천·김은재 외, 2015)에 나오는 급진사회운동가 9명이 풍부하게 구술한 비제도권 사회복지실천현장 경험 구술데이터를 취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Giorgi(2004)의 4단계 분석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전체내용을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읽고 참여자들의 경험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연구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가능한 단위로 의미단위를 구분했다. 2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 중복되는 동일한 의미단위들을 하나의 의미단위로 분절하고 제거하며, 중복되지 않는 의미단위들을 확인한 다음, 각각 확정된 의미단위들을 다른 의미단위 및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 지으면서 확정된 의미단위를 해명한 후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확보했다. 3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 각각을 전체적인 의미와 관련시켜 공통된 의미단위로 묶고, 참여자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미단위를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용어로 바꾸어 나갔다.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김성천·김은재 외, 2015)으로 엮어 출판한 책에 구술된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면서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구조를 파악하여 기술했다.

### 5)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김성천·김은재 외, 2015)에 구술되어 있는 급진사회운동가들의 비제도권 사회복지현장경험을 활용하여 분석할 때 비밀보장을 위하여 구술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소속한 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으며, IRB의 권고사항에 따라 전사를 비롯한 모든 분석 자료들을 USB에 저장하여 3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엄격성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연구의 엄격성 기준을 따랐다. 이는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신뢰성, 객관성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질적 연구의 신빙성, 재연가능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 등으로 연구의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로 논문을 쓴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과 현상학 연구로 박사논문을 쓴 사회복지학과 박사 1인에게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연구의 확인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4.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상황적 경험이라 보고 상황적 중심의미 진술에 이를 기술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일반적 구조진술에서 수렴하여 기술한다. 연구자는 Giorgi(2004)의 견해를 수렴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상황적 의미진술과 구조적 의미진술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Giorgi의 4단계 분석단계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여 350개의 의미단위를 분절하여 구성하였다. 이 의미단위 중 중복되는 것과 구조 밖에 있는 것을 제거한 다음, 84개의 의미단위를 구성했고 이를 다시 공통된 주제로 묶어 24개의 드러난 주제와 7개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상황적 구조진술에서는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과 경험에 대한 의미를 진술하였고, 일반적 구조진술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진술하였다.

〈표 2〉 비제도권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사회복지 실천경험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의 미 단 위
준비된 변화의 빚장열기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	오랜 독재정권의 억압과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가 에너지가 됨. 누구나 그런 운동의 경험과 관심이 있어 외면할 수 없었던 시대상황. 6.10항쟁 시절 민주화욕구가 분출될 때 자신도 동참하고자 뛰어 듦. IMF이후 단기간에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사회구조적 빈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소수운동가들의 운동을 지원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의미단위
		해주고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감이 있었음.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 등장	민주화운동이 주춤하자 시민운동 쪽으로 방향을 돌림. 운동권세력이 재조직될 당시 사회운동으로 선회하여 시작함. 1990년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없는 중앙단위의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음. 2005년 이후 사회운동의 관심분야가 당사자 목소리에 주목한 사회복지와 NGO로 확장되어 감. 생활세계에서 시작된 환경 및 건강권 찾기 운동으로 확대됨.
	억압되었던 사회복지 욕구 분출	8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해져 사회 각 부문에서 미해결된 욕구들이 분출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IMF체제 편입으로 숨어 있던 복지이슈가 부각된 후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됨.
	준비된 문제해결 능력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경험이 사회복지실천에서 문제발견과 해결의 원동력이 됨.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둔 준비된 운동경험이 운동을 추진하는 추동력이 되어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보임. 운동권 선배들이 닦아놓은 실천기반과 관점 때문에 사회문제에 핵심이 쉽게 파악함.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분노의 힘	차별받고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목격한 후 현장 속으로 뛰어 듦. 사회구조적인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즉각적으로 뛰어들음. 차별과 억압받는 현실은 죽어있는 양심을 일깨움.
	불균형적인 사회구조에 급진적인 변화를 추동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한 길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함. 제도적인 복지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함. 민주화 이후 사회참여와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현장에 뛰어 듦.
숙명처럼 다가온 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반억압·반차별 운동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도전함. 성소수자들을 위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용기를 냄. 차별과 억압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운동에 투신함. 소수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키라고 생각함.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병어리들의 입이 되기로 함.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로 지평 확대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는 또 다른 차별을 낳지 않는 보편적 학교급식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함. 정부의 강요된 자활이 아닌 노숙자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벌임.
	문제해결의 핵심은 현장	현장은 문제해결에 최종 권위이자 근원이라고 생각함. 현장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발굴함. 모든 사회복지문제의 해답은 변화무쌍한 현장에 있음.
아래로부터의 개혁모색	정부지원을배제한 지역사회자생력 키우기	정부 기득권세력의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공공의 예산을 거부함.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공서와 같은 행정주체와 타협하지 않는 강성노선을 유지함.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지원 아닌 민간의 자금을 모금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님.
	소수자들의 권리강화 노력	소수자에게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서비스는 사회변화를 통한 체제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음.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를 동시에 보는 이중적 관점을 생성함. 우리의 관심은 소수자가 부당하게 억압과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
		노숙인들이 의식화를 통하여 개인의 빈곤을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의 미 단 위
	의식화는 당사자 운동을 이끄는 힘	찾는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됨.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악순환을 끊고 삶의 주체로 삶의 대안들을 만들어 내게 조력함. 모든 변화의 중심은 당사자들이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함. 주목받지 못하는 급진적 사회운동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을 일깨움.
	사회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자기문제에서 출발해 세상문제를 보게 되면서 국가적인 문제까지 연대하여 투쟁하게 됨.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보다 임파워먼트임을 깨닫고 노선을 급진적 사회복지운동 지향으로 변경함. 당사자운동의 주춧돌이 되기 위하여 임파워먼트에 총력을 기울임.
소수자들의 결집된 힘	소통을 통한 사회복지운동	복지를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는 소통임. 보편적 복지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를 구성하여 영상과 비디오를 활용하여 대중적인 소통과 공감의 토대를 만듦.
	사회변화의 동력은 연대	보편적 복지를 가로막는 장벽을 연대로 돌파함. 같이 연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캠페인이고 대부분의 넓은 사회복지. 연대하여 문제제기와 대안을 점검시킴. 분산되어 있던 지역의 점조직들이 연합을 통해 힘을 결집함. 사회복지현장과 시민, 노동조합과 연대전략을 세우며 허브역할을 함.
	제도개선과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진화	법제정 위해 국회 입법청원 활동, 농성, 단식투쟁 등을 통해 대중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키워움. 민주주의의 요체는 투표가 아닌 데모와 농성임을 경험으로 깨달음. 집회를 통하여 사회변화를 대중들과 함께 고민함. 운동 전략은 이슈나 주제, 타켓만 다르지 맥락은 모순된 사회개혁이라는 동일성에 위치함. 제도권과는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지만 때로는 친화전략을 씀.
소수자들에 게 억압적인 법과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는 믿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음. 당사자들은 정책의 대상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음. 모순된 현실과 억압을 변화시킬 주체는 당사자 개인의 능력과 결집임.
	억압의 장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법과 제도	억압과 통제의 기제가 아닌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어야 함.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여 제도를 바꿈. 법을 바꾸기 위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적인 명시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는 소수자 지향적인 법과 제도임.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투쟁	법 개정으로 장애인들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킴. 입법에 이르는 제도개선 투쟁의 중심역할을 함.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미비한 관행을 바꾸는 법과 제도에 초점을 둠. NGO들과 연대하여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을 위한 운동을 이끌어 법제정 생취함.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듦. 법과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성과.
	급진사회운동	이념투쟁에서 실천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운동성이 떨어짐을 절감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의미단위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함	실천 현장의 한계	함. 충분히 입법과 제도화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력이 떨어져 합법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음. 소수자관점을 사회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이슈로 발전시키지 못해 늘 한계로 부딪힘. 지역사회와 거시사회의 이슈는 항상 연결되지 않기에 한계를 느낌.
	한계와 좌절을 넘어 끊임없는 도전	지속적인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와 인권유린 자행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듦. 정부와 기득계층의 근거 없는 논리에 꾸준하게 논리를 만들어 대응함. 내부의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운동이 탄력을 받지 않음.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적 재구성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적 책임	개인의 삶에서 국가와 사회의 공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임. 복지국가는 밀려도 떨어지지 않게 방어벽을 치는 것임. 사회복지의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고 실천해야함.
	전문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유연한 전략	사회복지운동은 각 부문별 각개전투식의 성장이 아닌 동반성장으로 나아가야함. 다양한 이슈를 다양한 층위로 접근해야함. 사회를 구조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됨. 사회복지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아져야 함.
	변화를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를 바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함. 기관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급진 실천사회복지사 교육이 필요함. 복지관이 단순한 복지전달체계가 아닌 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 복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정책이나 이론을 강조하기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 1) 상황적 중심의 의미 진술

### (1) 준비된 변화의 빔장열기

#### ①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

한국사회의 과도적이고 격변적인 시대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사회부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화운동 경험은 6·10 항쟁이후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까지의 과도기적이고 격변적인 시대상황과 민주화투쟁의 경험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운동에너지는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운동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만들었다.

“1980~1990년대는 한국사회가 격변적이고 과도기적인 시대였고 누구나 그런 사회운동의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었어요.”(참여자1)

“90년대 초반만 해도 시대정신이 반독재타도, 민주화나 개인의 자유, 인권을 늘려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었으니까.”(참여자3)

## ②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 등장

1990년대 민주화운동이 목적을 잃고 주춤하자 참여자들은 정치운동에서 시민운동 쪽으로 운동의 방향을 선회하며 사회운동을 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2000년 이후 또 다른 방향을 모색했다. 참여자3의 경우 NGO와 사회복지를 접목하여 새로운 실천영역을 개척했고 참여자 2와 4는 생활개선을 위해 시작한 실천을 환경과 건강권 찾기 운동으로 점차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에 오면서 부문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회구성원이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했죠.”(참여자1)

## ③ 억압되었던 사회복지 욕구 분출

참여자들은 1980년대를 사회복지 이슈가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억눌렸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욕구가 분출하던 시기였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참여자 1과 5는 80년대 중반을 정치만능시대에 정치문제에 가려 해결되지 못한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기의 색깔을 띠고 표현되던 시기로 의미화하기도 했다.

“98년 그 시기가 IMF를 맞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분위기가 빈곤문제와 복지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조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 1990년대 중반 도시재개발 철거문제, 장애인복지법 개정문제 ... 사회 내에 복지문제가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게 된 거죠.”(참여자5)

## ④ 준비된 문제해결 능력

참여자들의 민주화 운동경험은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발전되었다. 참여자들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배양한 역량과 비판의식 역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주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잘하는 거지요. 그러한 삶의 경험을 이주 운동하고 연결하니깐 이주운동이 확확 바뀌는 겁니다. ...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주여성들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보였어요.”(참여자9)

## (2) 속명처럼 다가온 일

### ①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분노의 힘

참여자들에 있어 분노는 곧 힘으로 경험되었다. 참여자들은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 땅의 버려진 소수자들을 목격한 후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자각은 차별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는 현실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능력으로 질적 전환을 하였다.

“눈, 눈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 들었으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 그런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참여자3)

#### ② 불균형적인 사회구조에 급진적인 변화를 추동

민주화이후 사회참여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기반하여 참여자들에게 사회복지의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이나 개인에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소수가 다수가 포함된 사회에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회복지사의 관점이 이렇게 되어야 하며 ...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참여자1)

#### ③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반억압·반차별운동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려받기보다는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다. 참여자7의 경우 성 소수자들을 위한 옹호활동은 곧 사회적 비난을 의미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정상적인 사회를 차별과 억압이 없는 평등한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사회로 의미화하였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운동을 해왔다. ... 차별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 ...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참여자1)

#### ④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로 지평확대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보편적 복지는 그들의 최종 지향점이다. 참여자2는 학교급식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노숙인 인권운동을 실천하는 참여자6은 정부에 의해 강요된 자활이 아니라 노숙인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자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자들 모두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낳는 또 다른 인간억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저소득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은 무료급식대상 학생에게 심리적‘낙인효과’를 초래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일으키며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해요.”(참여자2)

### (3) 아래로부터의 개혁 모색

#### ① 문제해결의 핵심은 현장

참여자들이 있어 실천과 개혁의 핵심은 현장이었다. 참여자 모두는 현장을 문제해결의 최종권위이자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장을 변화시킬 주체는 당사자들이라고 자각하였고 현장

에서 실현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여태껏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알아 놓 것들이 자양분이 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 사회복지운동도 현장 없이 할 수 없지요. 현장에 모든 것이 있어요. 현장을 알아야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거죠.”(참여자9)

#### ② 정부지원을 배제한 지역사회 자생력 키우기

참여자 모두가 정부의 자금지원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8은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에이전시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공적인 예산을 거부하고 자생력 키우기에 집중하기도 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성향은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배척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는 민간이 스스로 자금을 모집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사회복지 철학으로 결집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 ○○에서 기획하는 활동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우리 ○○의 힘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복지현장과 부딪치는 ○○시, 관공서 같은 행정주체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참여자5)

#### ③ 소수자들의 권리강화 노력

참여자들은 사회 환경과 개인을 이중적인 초점으로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개인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에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권리강화는 사회구조적인 체제개혁 이외에는 현실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은 기관서비스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구조에 대한 관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여자1)

#### ④ 의식화는 당사자운동을 이끄는 힘

참여자들에게 있어 당사자들의 권한부여의 첫걸음은 의식화운동이다. 참여자6은 노숙인 당사자들의 의식화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갖추게 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복지패러다임 만들기에 헌신하고 있다.

“주거, 노동, 사회복지, 의료, 금융피해 등 여러 빈곤 연대활동과 함께 홈리스들이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 노숙인들이 함께 자신들의 삶에 대해 비판적 의식의 고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참여자6)

#### ⑤ 사회구조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자기문제에서 출발해 사회와 전체를 볼 수 있

는 안목과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당사자운동의 핵심을 임파워먼트라 보고 이를 실천 동력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운동을 벌이면서 ... 시설을 세워서 장애인을 상품화하는 사회복지에 선을 긋고 떡을 하나 주는 것보다 이 땅위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참여자1)

#### (4) 소수자들의 결집된 힘

##### ① 소통을 통한 사회복지운동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운동과 보편적 권리의 획득, 주류사회의 편견을 무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는 소통임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의 사회적 힘을 불어넣기 위하여 문화적 접근 실천으로 영상과 미디어 문화 콘텐츠를 구성하여 대중적 소통을 기획하기도 했다.

“제주도민과 전국의 생명평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강정의 현실을 알리는 조그만 계기가 됐습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영상으로 강정마을의 상황을 도내 외에 알리는 것도 필요했습니다.”(참여자4)

##### ② 사회변화의 동력은 연대

참여자들이 현실차원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소수자들의 연대이다. 소통은 곧 소수자들의 연대로 연결되어져야 했다. 참여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가로막는 장벽을 연대로 돌파하였고,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폭력은 커다란 바위 같지만 연대하여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다. 연대와 소통은 점진적이고 미약해보이지만 장벽을 넘는 또 하나의 힘으로 경험되었다.

“함께해서 문제제기하고 시민의 삶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 같이 연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캠페인이고 대부분의 넓은 복지에 포함되는 것이예요. ... 우리의 무기는 관심과 연대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참여자3)

##### ③ 제도개선과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진화

참여자들은 소통을 통해 연대를 이룩한 후 현실문제 개선에 진입했다. 참여자들은 입법청원 활동, 농성, 단식투쟁, 집회 등을 통해 대중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증강시켰다. 참여자 모두에게 민주주의의 요체는 투표가 아닌 시위와 농성이었고, 집회는 대중들과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장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제도권과 친화전략을 쓰기도 했다. 참여자들 모두에게 있어 운동의 전략은 모순된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목적에 결집되어 있다.

“제가 만드는 전략은 우선 저는 이주여성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에 먼저 권의하고요, 안 되



면 단체를 모아서 기자회견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농성도 하고요.... 단지 이슈나 주제, 타겟에 따라서 다른 거지. 맥락은 다 같아요. 차별받고 억압받는 민중을 위한 일이니까요.”(참여자9)

### (5) 소수자들에게 억압적인 법과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 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는 믿음

참여자들은 세상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제도나 법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었다.

“특별한건 없다. ...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면 아무리 수구세력이라고, 기득권이라고 해도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으니까. ... 계속 아우성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사회는 조금씩 바뀌어나갈 거예요. 반드시 좋은 사회는 올 수 밖에 없습니다.”(참여자3)

#### ② 억압의 장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법과 제도

참여자들에게 있어 법은 강자에 의해 만들어졌고 강자의 논리이자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법은 약자보호이며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믿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권리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법제정 노력에 매진했다.

“계속해서 개개인의 삶을 ... 이중, 삼중, 사중으로 사회법과 제도가 미비해 ... 아무도 관심 없던 주제를 관심 갖게 이슈로 만들고 ... 법사위 통과시킨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죠.”(참여자3)

#### ③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투쟁

참여자들은 법은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무상급식, 장애인 의무교육, 이주노동자보호법, 다문화지원법 제정 등 사회적 소수자 옹호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이어졌다. 참여자1의 경우,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입법 활동에 중심을 두고 제도개선 투쟁의 중심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입법 활동은 자신들의 존재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운동권이라는 일반적인 고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데도 기여했다.

“87년부터 94년까지는 장애문제를 법이라는 틀에서 바라보았어요. ... 즉 체제를 바꾸기 보다는 체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체제 안에서는 법을 바꿔야 정책, 제도, 서비스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요. 구체적으로 법 제정 개정노력을 했습니다.”(참여자1)

### (6) 새는 일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다림 필요함

#### ① 급진사회운동실천 현장의 한계

참여자들은 이념투쟁을 할 당시에는 운동성이 강했으나 현실적인 생활문제의 개선으로 노선이 바

빚에 따라 운동성이 떨어짐을 실감했다. 참여자1과 8은 실천력이 떨어져 충분히 입법과 제도화가 가능한 문제를 법제화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사회이슈와 거시사회이슈는 항상 연결되지 않았고 소수자들의 관점을 사회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이슈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결국은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고용 허가제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두 번째 그 법을 만들 때 현재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를 못 시킨 거죠. 원래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참여자8)

## ② 한계와 좌절을 넘어 끊임없는 도전

참여자들의 위와 같은 노력들은 곧바로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패배와 좌절을 맞볼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1의 구술처럼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와 인권유린 자행되는 현실을 볼 때 마다 자괴감을 맞볼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5와 7은 내부의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운동이 탄력을 받지 않는 경험도 하였다.

“우리 내부적으로 한계점은 우리도 막 치고나가고 싶은데, 상근자 3명에서 이 모든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죠. 물적 토대나 인적토대가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 게 많아요. ... 우리의 역량부족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인 한계인 것이죠.”(참여자5)

## (7)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적 재구성

### ①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적 책임

참여자들의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회복지실천은 아직은 미완의 기획이고 진행 중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다. 참여자3은 복지국가는 사회의 주변부로 계속 내몰려도 추락하지 않게 방어벽을 치는 것이라고 의미화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복지지는 실적주의예요. 숫자로 다 봐요. ... 클라이언트들에게 수혜가 강화되다보니 대상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시혜적인 사람으로 자꾸 길들이는 것이죠. ... 복지를 권리로 봐야지, 시혜가 아니라는 거죠.”(참여자9)

### ② 전문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유연한 전략

참여자들은 사회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 전략에서는 매우 유연해져 그동안 운동차원에서 경시했던 전문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참여자1의 경우, 사회복지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각개전투식 성장이 아닌 동반성장으로 추진해 나가

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회복지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각종 시설비리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대안이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뒤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따라잡을 전문성이 없어요. ... 우리가 앞서나가서 차단하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운동으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참여자6)

### ③ 변화를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를 바꾸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과거의 강성적인 투쟁방식 성향을 유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실천교육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실천이론에 중심을 두기보다 개혁적 변화를 실천하는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지프로그램의 유형과 전달체계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당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실 복지관이 단순한 복지전달체계로만 기능하면 안돼요. 복지관이 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지요. .... 있는 제도라고 제대로 관심을 갖고 ...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3)

## 2) 일반적 구조진술

### (1) 준비된 변화의 빔장열기

참여자들 모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있다. 참여자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배양한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우리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 분야에 국한됐던 실천을 문화, 지역사회, 사회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실천으로 바꾸어갔다. 참여자들의 사회복지실천은 개량주의에 입각한 노선수정이라기보다는 타겟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속명처럼 다가온 일

참여자들은 사회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분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마음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급진적인 변화를 추동시키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전략은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현실적인 복지 못지않게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억압·반차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실천정향의 귀결은 보편적 복지확대다.

### (3) 아래로부터의 개혁모색

참여자들은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을 제도를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

념을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식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당사자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문제해결의 핵심은 현장이며 제도적 지원보다는 소수자들의 자생적인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강화하는 주체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4) 소수자들의 결집된 힘

참여자들은 소수자들의 수평적 소통과 연대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략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가로막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기득권의 힘은 마치 장벽이나 바위와도 같이 굳건하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자들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대중운동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 (5) 소수자들에게 억압적인 법과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꿈

참여자들은 현재의 법과 제도를 소수자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억압의 기제로 보고 있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닌 사람이라고 믿고 당사자운동을 펼쳐 억압을 타파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경주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 약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법률제정과 개정이었다.

#### (6)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념투쟁에서 현실적인 투쟁으로 방향을 수정했지만 운동성과 실천력이 떨어져 벽에 부딪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고, 좌절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와 정체를 참여자들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 (7)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적 재구성

참여자들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사회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며 과거의 급진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다소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를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복지까지 포괄하는 연대전략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목표는 사회복지사들과 실천가들에게 현장에서 실천을 할 때 적극적인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 입장에서 미학적이고 윤리적인 자기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급진사회운동실천에 대한 의미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한 반차별·반억압 운동이었고 기본적으로 평등과 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주된 사회복지실천 대상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노숙인, 도시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었다. 실천전략의 중심에는 비판적이고 성찰적 의식 제고를 통한 권한부여와 세력화, 밑으로부터의 소통과 연대, 입법과 법 개정 운동 참여, 집회와 농성, 정부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관료주의에 대한 효율적 대처 등의 제도권 사회복지실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천 대상인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계하여 끊임없이 당사자운동을 펼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지원법, 노숙인지원법,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변화와 제정을 이끌어 냈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비제도권 사회복지현장 실천경험들이 급진사회복지실천모델의 주된 실천방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클라이언트가 처한 사회구조적 환경보다 개인의 역기능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주류 사회복지실천모델의 한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실천방법으로 급진사회복지실천모델을 적용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둘째, 주류 사회복지사들이 실천영역에서 문제의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합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을 취사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패러다임의 지평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임상중심의 사회복지실천방법의 한계를 절감한 일부 현장실천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실천방법의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실천방법을 다양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기초소득과 보편적 급식, 노숙인자활센터 등의 분야에서는 급진사회복지실천 기법인 반억압·반차별, 임파워먼트, 사회행동, 옹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 비판적 인식개발, 사회적 교육과 공감과 같은 기법들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2012년 출범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밋사)”운동은 제도권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피켓팅을 통해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사회운동단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김성천·김은재 외, 2015).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급진주의나 급진적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나 과격한 노조운동 등으로 인식하는 선입견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높게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관련자들은 급진적 접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등에서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김성천, 2008). 그러나 급진적 실천을 적용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급진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저소득 집단, 노인 집단, 여성 집단, 소수민족과 소수인종, 장애인, 동성 부부, 시골 거주자 등의 문제 분석과 개입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ompson, N., 2001; Pugh, R., 2000; Reisch, M., and Andrews, J., 2001).

본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와 참여자들의 사회복지실천경험을 통하여 한국 사회복지현장에서 급진사회복지실천모델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타진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교육, 사회적 공감 훈련 등을 통하여 비판적 인식이 고양되고 권한 부여(empowerment)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관련 정책 입안과 입법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복지사들과 당사자들이 입법운동의 주체가 되어 태동한 법률과 제도는 매우 드문 편으로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엘리트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통해 사회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자들에게 전향적이고 우호적인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비제도권 급진사회운동가들과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제도권 급진사회운동가들은 제도권 사회복지사들이 지니지 못한 운동성이 있지만 이 운동성을 대중의 관심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소수자의 문제를 소수자의 관심이 아닌 대중의 관심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도권 사회복지사들이 비제도권보다 전략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제도권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운동성과 제도권 사회복지사들의 대중성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어 소수자들의 문제가 다수의 문제로 부각되는 동시에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확립에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선서에 기반 한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에 급진사회복지실천이 도입되어 현실적용이 가능한 한국적 모델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현장실천가들이 급진사회복지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급진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방법과 실천현장 적용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는 주류 사회복지실천모델의 편향된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급진사회복지실천모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거시적 인요인과 미시적요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임현진·송호근, 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덕·최명민·이현정·조성우 편저, 2012,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서울: 시그마출판사프레스.
- Mel Gray, Stephen A. Webb.
- 김경희, 2005,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고찰: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1):41-64.
- 김미경, 2008, “사회복지 분야의 운동적 성격 및 NGO적 위상을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연구*, 16(1): 95-112.
- 김미원, 1997,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사회사업실천의 임상중심경향과 전문화 지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31: 171-190.

- 김수정, 2007,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 실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김영모, 1981, "현대사회사업의 동향과 그 비판: 급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1): 95-112.
- 김의동, 2010,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 세계화운동- 특징과 한계 및 이념적·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4): 371-398.
- 김인숙, 2004, "한국사회복지실천학문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53.
- 김성천, 2005, "한국사회복지실천의 현실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토론문, 99-108.
- 김성천, 2008, "한국사회복지실천방법론의 불균형 문제", 중앙사회과학연구, 20: 31-49.
- 김성천·이은정, 2012, "한국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76-202.
- 김성천·김은재 외, 2015, 『옳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 서울: 학지사
- 김성천, 박순우, 장혜림, 이현주, 이해령 역, 급진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Fook, J., 2007, Radical casework.
- 김중해·김민선·노연희·이채원, 1991, "진보적 사회사업실천의 방향성 모색", 성심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5-126.
- 나병식, 1998, "진보적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세진·조홍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 백종규, 1997, "한국 사회복지운동의 사회복지 실천적 의미: 미국 진보적 사회사업의 개입전략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 2012, "사회복지관에서 주민운동은 가능한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5(2): 69-99.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서울: 한길사.
- 오마이뉴스, 이민희, 2015, "한국의 사회복지교육, 이대로 괜찮나?", <http://www.ohmynews.com>.
- 이영환, 2005,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영환·이정운, 1996, "사회복지를 시민운동으로: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취져선 확보운동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1: 153-160.
- 이은주, 200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찰: 간접적 개입과 관련하여", 상황과 복지, 16: 203-245.
- 이태수, 2008, "학계에서는 보건복지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기획주제Ⅱ, 159-163.
- 위키백과, 2015,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1』, 서울: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정순돌, 2005, "한국사회복지실천의 현실진단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기획주제발표Ⅱ, 73-94.
- 최명민·김성천·김정진, 2014, "한국 사회복지실천교육의 대안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한덕연, 2015, 복지요결, 사회복지정보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 통계.

- 한인영·김성천 역, 2007, 『세계화와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Lena Dominelli.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for a Changing Profession*.
- Bakley, R., and Brake, M., 1975, *Radical Social Work*, London: Sage Publications.
- Bakley, R., and Brake, M., 1980, *Radical Social Work and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 Dominelli, L., 2002, *Anti-Oppressive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Palgrave Macmillan.
- Dustin, D. 2007, *The McDonaldization of Social Work*, Hampshire : Ashgate.
- Fook, J., 2002, *Social work: Critical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usands Oak, CA: Sage.
- Leonard, P., 1975, *Toward a paradigm for radical practice*, In Roy Bakley and Mike Brake (eds), *Radical Social Work*, London: Sage Publications.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Malcolm Payne, 2003, *Modern Social Work Theory*, Macmillan Press Ltd.
- Mullaly, R. P., and Keating, E. F., 1991,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dialectics of social work,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2(2).
- Piven, F. F. and Cloward, R. A., 1972, *Regulating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London: Tavistock.
- Pugh, R., 2000, *Rural social work*. Dorset: Russell House Publishing.
- Reisch, M., and Andrews, J., 2001, *The road not taken: A history of radical social work in the United States*. PA: Brunner-Routledge.
- Specht, H., 1994, *Unfaithful Angels*. N.Y.:The Free Press.
- Thompson, N., 1993, *Anti-discriminatory Practice*. London: Macmillan.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ield Experiences of Radical Social Workers

**Kim, Sung Chun**

(Chung-Ang University)

**Kim, Eun Jae**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performed to verify a suggestive understanding and undertone on radical social workers's balanced practical experiences respon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o discover the new practical way of Korean social work so a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above mentioned microscopic approach. It focuses on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study and further relating areas to provide information on Radical Social Workers'(RSW) social work practical and specific experiences and fundamental implication. This research has been participated with 9 RSWs, led the past democratic movement, have participated with this research. The data covers 84 meaningful units, 24 exposed topics, and 7 essential themes. The essential themes are as follow; lifting a latch into prepared changes, unavoidable destiny, drive for change from the bottom, collaborated forces of minority groups, changing the oppressive laws and institutions to more favorable ones for minorities, being patient and waiting required as birds breaking eggs to become a bir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Researchers discuss the main features and issues of our instituted social work practices.

Key words: radica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movement, new social movement, movement people concerned, empowerment,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일 : 16. 04. 06, 심사일 : 16. 05. 03, 게재 확정일 : 16. 05. 19]